

김오진 1차관,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적극추진 강조

- 18일 대구 제3산업단지 방문... 재생사업 추진현황 점검·제도 개선 약속 -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8일 오전 대구 제3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신속하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다.
 -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서 경공업 분야의 약 2,4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,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김 차관은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“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, 수출, 제조업 분야 고용의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나,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”면서,
 - “대구 제3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도로를 신설, 확장하여 산단 내 교통 흐름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장, 공원 등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한다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김 차관은 “지역경제의 거점인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일자리와 첨단산업 등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 추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”면서
 - “재생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한 적극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2023. 8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